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2014 4월
April
DAILY WITH GOD



표지디자인: 김 완 석

요한복음 1~5장 / 마태복음 27~28장

☎ 금란청년회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편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Psalms119:9)

본 권은 일일 말씀 묵상과 주일 영성 일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일 말씀 묵상 활용방법

- ① Commentary 항목은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 및 묵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Application 항목은 본문 말씀에 대한 말씀 묵상 및 적용 내용을 기록한다.

2.주일 영성 일기 활용방법

- ①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동행 계획 세우기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속회 시간에 속원들과 함께 작성한 내용을 서로 나눈다.
- ② 영성일기는 주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개인적으로 주일 하루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해야 할 제목들과 기도 제목들을 작성한다.

1. 우리 교회 기도제목

- 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미래, 안보, 안정, 경제를 위하여)
- ② 감독님 국내외 집회와 건강을 위하여
- ③ 담임목사님 맡겨진 사명과 건강을 위하여
- ④ 세계선교와 2020 군복음화와 군목님들을 위하여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 ⑤ 교회부흥과 금년도 목표를 위하여(130,000명)
한 속회 1명씩 더 참석을 위하여(2300속 속회 부흥)
- ⑥ 기독유치원 준비와 설립을 위하여

2. 청년회 연합 기도제목

- 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청년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배와 전도가 삶이 되는 금란 청년이 되기 위하여
- ② 청년회 담당전도사와 개체청년회 임원들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 ③ 청년회 부흥1000명, 선교1000명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 ④ 청년회 토요예배와 주일속회모임의 부흥을 위하여
- 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군대, 유학간 청년들을 위하여
- ⑥ 신입청년들과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청년회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
- ⑦ 청년들의 인가 귀도와 만남의 축복, 그리고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 ⑧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들이 청년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 ⑨ 4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청년들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회복되도록
- ⑩ 6개월 단기선교를 떠난 이은지, 김소라, 김선영 청년회 단기선교사를 위해

3. 개체 청년회 기도제목

4. 속회원(나눔팀원) 중보 기도제목

4월 1일 화요일 : 요한복음 1장1절~5절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3.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Commentary

①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이다. 요한복음은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던 예수님의 신적 존재되심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서를 시작한다.

②요한복음의 첫 단락으로서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창조 전에 함께 계셨고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사역을 직접 묘사하는 말로서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육신을 통해 세상에 결정적으로 드러내셨으며, 또한 말씀사역을 통해 이 세상과 접촉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성육신하여 빛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두움가운데 거하며,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은 어디인가?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en.

5.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6.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7.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en might believe.
8.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9.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10.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11.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12.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

Commentary

- ① 예수님의 신적 선재성을 말한 앞단락에 이어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즉 초월적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사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암시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이자 빛으로 묘사함으로써,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② 본문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어 오신 참 메시아가 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16절 후반절 ‘~은혜위에 은혜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진 것이다. 나는 은혜 받은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를 잊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3.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14.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15. John testifies concerning him. He cries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16.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17.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18.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랴 하느냐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19. Now this was John's testimony when the Jews of Jerusalem sent priests and Levites to ask him who he was.

20. He did not fail to confess, but confessed freely, "I am not the Christ."

21. They asked him, "Then who are you? Are you Elijah?" He said, "I am not." "Are you the Prophet?" He answered, "No."

22. Finally they said, "Who are you? Give us an answer to take back to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23. John replied in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Commentary

①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세례 요한은 먼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

②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자 세례요한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며, 이후에 오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③세례 요한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추앙을 받고 있었으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말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향하게 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
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
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
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
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4. Now some Pharisees who had been sent

25. questioned him, "Why then do you baptize if
you are not the Christ, nor Elijah, nor the Prophet?"

26. "I baptize with water," John replied, "but
among you stands one you do not know.

27. He is the one who comes after me,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28.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where John was baptizing.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29.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30. This is the one I meant when I said, 'A man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31.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Commentary

①본문은 지난 단락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29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33절), 하나님의 아들(34절)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근본 하나님이신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②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31절)은 현대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례전적인 의미의 세례가 아니다. 당시 물은 모든 부정을 뜻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죄를 깨끗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처럼 요한의 임무는 물세례를 주는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물세례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촉구하나, 성령세례는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가리킨다.

③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령 세례의 삶을 살고 있는가?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2. Then John gave this testimony: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as a dove and remain on him.

33. I would not have known him, except tha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h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34. I have seen and I testify that this is the Son of God."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4월 5일 토요일 : 요한복음 1장35절~42절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5.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with two of his disciples.

36. When he saw Jesus passing by,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37. When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ay this, they followed Jesus.

38. Turning around, Jesus saw them following and asked, "What do you want?" They said, "Rabbi" (which means Teacher), "where are you staying?"

Commentary

①본문은 그리스도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시몬(베드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②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다.

③우리는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볼수 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있는 행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제인 베드로에게 증거하고 곧바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였다. 나에게도 안드레와 같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39.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So they went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and spent that day with him. It was about the tenth hour.

40.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41.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42. And he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when translated, is Peter).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① 기도 생활

② 말씀 생활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④ 전도 및 교제

⑤ 기타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행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① 가정

② 학교 및 직장

③ 기타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43. The next day Jesus decided to leave for Galilee. Finding Philip, he said to him, "Follow me."

44. Philip, like Andrew and Peter, was from the town of Bethsaida.

45. Philip found Nathanael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one Moses wrote about in the Law, and about whom the prophets also wrote --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46.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Nathanael asked. "Come and see," said Philip.

47. When Jesus saw Nathanael approaching, he said of him, "Here is a true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thing false."

Commentary

①본문은 안드레, 시몬(베드로)에 이어 빌립과 나다니엘(바돌로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후, 마치 전 단락에서 안드레가 시몬(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처럼 빌립도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된 것이다.

②처음에 나다니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③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니엘이지만,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할 나다니엘과 같은 전도대상은 누구인가?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48. "How do you know me?" Nathanael asked. Jesus answered, "I saw you while you were still under the fig tree before Philip called you."

49. Then Nathanael declared,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50. Jesus said, "You believe because I told you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You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at."

51. He then added, "I tell you the truth, you shall see heaven open,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
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1.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2.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3.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4.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time has not yet come."
5.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6.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twenty to thirty gallons.
7.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Commentary

-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 행하신 첫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다. 즉,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석상에 초대받으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것이다.
- ②가나안 혼인 잔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은 만물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지니는 메시아적 주권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또한, 이 표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 ③은 세상과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내려 놓아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항아리를 비울때에 비로소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오늘 내가 비우고 새롭게 변해야 할 내 인생의 항아리는 무엇인가?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8.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9.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10.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11.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Jesus performed at Cana in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12.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brothers and his disciples.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3.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14.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men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15.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area,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16.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17.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18. Then the Jews demanded of him, "What miraculous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19.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three days."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숙정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러나 먼 지방에서 오는 자들이 그러한 짐승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목적에서 비롯된 관행은 점차 부패해졌다. 제사의식을 방자해서 제사장들은 상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서 상납금을 받았으며, 상인들은 폭리를 취했었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겉으로는 성전과 제사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탐욕행위이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②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심으로 성전을 자기 몸에 비유하시며 죽은 후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③지금 내가 가진 열심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가? 혹은 위선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0. The Jews replied, "It has taken forty-six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three days?"

21.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22.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23.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ast, many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s he was doing and believed in his name.

24.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for he knew all men.

25. He did not need man's testimony about man, for he knew what was in a man.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1.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2.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3.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4.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5.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6.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7.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Commentary

-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는 참 중생(거듭남)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니고데모는 인간의 공로 곧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바리새파적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몇가지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중생(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답변을 하였다.
- ②여기서 중생이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모태로 다시 들어 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③나는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자.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 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8.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9.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10.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11. I tell you the truth,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12.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13.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 the Son of Man.

14.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15.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18.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Commentary

①본문은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이심을 거듭해서 천명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3장16절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요약적으로 설명한 구절이다.

②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였음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여 자신들의 죄가 들어날까봐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③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빛으로 비추신다면, 나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9.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20.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21.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he has done has been done through God."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2.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2. After this,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into the Judean countryside, where he spent some time with them, and baptized.

23. Now John also was baptizing at Aenon near Salim, because there was plenty of water, and people were constantly coming to be baptized.

24. (This was before John was put in prison.)

25. An argument developed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a certain Jew over the matter of ceremonial washing.

26. They came to John and said to him, "Rabbi, that man who was with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 the one you testified about -- well, he is baptizing,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Commentary

①본문은 세례 요한이 해롯에 의해 투옥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과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장면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데이어 이제 유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자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하며 불평을 터뜨렸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저들의 불평을 일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도리어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였다.

②30절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요한의 고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 준다.

③나는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27. To this John replied, "A man can receive only what is given him from heaven.

28.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said, 'I am not the Christ but am sent ahead of him.'

29. The bride belongs to the bridegroom. The friend who attends the bridegroom waits and listens for him, and is full of joy when he hears the bridegroom's voice.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30.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① 기도 생활

② 말씀 생활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④ 전도 및 교제

⑤ 기타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행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① 가정

② 학교 및 직장

③ 기타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2.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tender shoot, and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familiar with suffering.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4.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considered him stricken by God, smitten by him, and afflicted.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Commentary

①본문은 메시아의 수난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3절에서는 메시아의 초라한 모습과 사람들이 멸시에 대해, 4~6절에서는 메시아의 수난의 목적이 우리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것임을, 7~9절에서는 메시아가 대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 무죄하시면서도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을,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속전제물로 드리진 메시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②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여호와와의 뜻을 이루며 승리를 얻는 비결은 창과 칼로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으심을 통하여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③고난 구간을 맞이하여 나의 심자가 신앙을 회복하자. 나를 위해 심자가 질고를 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목상하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절제해야 할 육신의 일은 무엇인가?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6.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7. He was oppressed and afflicted, yet he did not open his mouth; he was led like a lamb to the slaughter, and as a sheep before her shearers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8.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9. He was assigned a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10. Yet it was the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and though the LORD makes his life a guilt offering, he will see his offspring and prolong his days, and the will of the LORD will prosper in his hand.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2.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3. All of us also lived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sinful nature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objects of wrath.

4.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5.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Commentary

①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②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③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는 구원 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7. in order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expressed in his kindness to us in Christ Jesus.

8.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

9.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10.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7.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역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33.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27. Then the governor's soldiers took Jesus into the Praetorium and gathered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around him.

28.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29. and then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s head. They put a staff in his right hand and knelt in front of him and mocked him. "Hail, king of the Jews!" they said.

30. They spit on him, and took the staff and struck him on the head again and again.

31. After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th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Then they led him away to crucify him.

32. As they were going out, they met a man from Cyrene, named Simon,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33. They came to a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34. There they offered Jesus wine to drink, mixed with gall; but after tasting it, he refused to drink it.

Commentary

①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들만이 입었던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으며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왕께 경배하는 흥대를 내었다. 또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며 예수님의 머리를 쳤으며,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조차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시에도 인류 대속사역을 위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다.

②예수님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발로였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③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한 주간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해 십자가 사랑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자.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여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35. When they had crucified him,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36. And sitting down, they kept watch over him there.
37. Above his head they placed the written charge against him: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38. Two robbers were crucified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39. Those who passed by hurled insults at him, shaking their heads
40. and saying,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three days, save yourself! Come down from the cross, if you are the Son of God!"
41.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mocked him.
42. "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He'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43. He trusts in God. Let God rescue him now if he wants him, for he said, 'I am the Son of God.'"
44. In the same way the robbers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heaped insults on him.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45. From the sixth hour until the ninth hour darkness came over all the land.

46.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 --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47. When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heard this, they said, "He's calling Elijah."

48. Immediately one of them ran and got a sponge. He filled it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ick,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49. The rest said,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s to save him."

50.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Commentary

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심자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심자가 죽음으로 인해 잠시나마 성부 하나님과 단절될 수 밖에 없다는 영적인 고뇌를 담고 있는 것이다.

②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한다.

③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도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정말 제사장처럼 경건한 삶을 살며 정성을 다해 주를 경배하며 섬기고 있는가?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5.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1. At that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52. The tombs broke open and the bodies of many holy people who had died were raised to life.

53. They came out of the tombs, and after Jesus' resurrection they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people.

54. When the centurion and those with him who were guarding Jesus saw the earthquake and all that had happened, they were terrified, and exclaimed,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55. Many women were there, watching from a distance. They had followed Jesus from Galilee to care for his needs.

56.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Joseph, and the mother of Zebedee's sons.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 of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of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을 향하여 앉았더라

57. As evening approached,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had himself become a disciple of Jesus.

58.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and Pilate ordered that it be given to him.

59. Joseph took the body, wrapped it in a clean linen cloth,

60. and placed it in his own new tomb that he had cut out of the rock. He rolled a big ston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tomb and went away.

61.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sitting there opposite the tomb.

Commentary

①예수님의 시체는 해자 지기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는데, 정작 그 장례는 가족이나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인물에 의해 거행되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공회의 결의에 반대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으나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린 제자들 대신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룸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조작해낼까 두려워하여 무덤을 인봉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③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 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 이 두가지 모습속에서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어느쪽에 더 가까운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62. The next day, the one after Preparation Day,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went to Pilate.

63. "Sir," they said, "we remember that while he was still alive that deceiver said, 'After three days I will rise again.'"

64. So give the order for the tomb to be made secure until the third day. Otherwise, his disciples may come and steal the body and tell the people that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is last deception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65. "Take a guard," Pilate answered. "Go, make the tomb as secure as you know how."

66.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by putting a seal on the stone and posting the guard.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1.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2.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3.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4.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5.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Commentary

①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처럼 기만적인 종교도 없을 것이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허무 맹랑한 신화에 불과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처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때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이다.

②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을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줌은 물론,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되는 반면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

③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감으로 인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받았으며,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나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며 기쁨으로 깨어있는가? 혹시 게으름과 나태함속에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6.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7.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8.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9.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ed him.

10.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① 기도 생활

② 말씀 생활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④ 전도 및 교제

⑤ 기타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행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① 가정

② 학교 및 직장

③ 기타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
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
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는 것을 인쳤느니라

31.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is above all;
the one who is from the earth belongs to the earth,
and speaks as one from the earth.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is above all.

32.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but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33. The man who has accepted it has certified that
God is truthful.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하나님의 진노)이 결정됨을 말하고 있다.

②31절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는 예수님을, '땅에서 난 이' 는 세례요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천상적 기원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창조주이시며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은 땅의 기원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신적 존재인 예수님과과는 절대 상대가 될수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다.

③36절에도 아들(예수님)을 믿는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들을 믿는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소유한 영생을 전해야 할 전도대상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힘써 전도하자.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4. For the one whom God has sent speaks the words of God, for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35.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placed everything in his hands.

36.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remains on him."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
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1. The Pharisees heard that Jesus was gain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2. although in fact it was not Jesus who baptized,
but his disciples.

3. When the Lord learned of this,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4.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5. So he came to a town in Samaria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Jacob had given to his son
Joseph.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무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의도적으로 우회하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방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부정한 과거를 지닌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

②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길이 있었다. 그중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갈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베레아를 통과하는 먼길로 돌아갔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뒤,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주해온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수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외되어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신 것이다.

③나의 주변에도 나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자.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6.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e journey, sat down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sixth hour.

7.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

8.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to buy food.)

9.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For Jews do not associate with Samaritans.)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0.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11. "Sir," the woman said,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re can you get this living water?"

12.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e well and drank from it himself, as did also his sons and his flocks and herds?"

Commentary

①본문은 지난 단락에 이어 예수님과 사마리아 땅의 수가 성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요청하자. 그 여인은 물 길을 그릇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실제로 우물 곁에는 항상 두레박이 묶여 있었지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마리아인의 그릇을 유대인(예수님)이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 길을 그릇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②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답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히 묵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 말씀해주신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순간적인 만족만을 주며, 세상의 모든 재물, 명예, 권력, 지식 등도 영적인 욕구에 대한 갈증을 만족케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신자에게 영적 충족감을 지속적으로 주는 생명수이다.

③14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나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갈급하며 목말라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무엇으로 갈급함을 채울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해보자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3.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14.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15.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on't get thirsty and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
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
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
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16. He told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17. "I have no husband," she replied.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18. The fact is,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19.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20.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21. Jesus declared, "Believe me, woman,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Commentary

①본문은 전단락에 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 중에 갑자기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다섯이라는 것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대하여 놀라며 예수님의 선지자되심을 고백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한 것과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②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외에 다른 성소를 갖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으며, 그러한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인격을 바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③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행사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2.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23.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25.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called Christ)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26. Then Jesus declared, "I who speak to you am he."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27. Just then his disciples returned and were surprised to find him talking with a woman. But no one asked, "What do you want?" or "Why are you talking with her?"
28. Then, leaving her water jar, the woman went back to the town and said to the people,
29. "Come,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Could this be the Christ?"
30.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31. Meanwhile his disciples urged him, "Rabbi, eat something."
32. But he said to them, "I have food to eat that you know nothing about."
33. Then his disciples said to each other, "Could someone have brought him food?"
34.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35. Do you not say, 'Four months more and then the harvest?' I tell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They are ripe for harvest.

Commentary

- ①본문은 예수님과 대화의 통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메시아를 발견한 여인은 벅차 오르는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즉시 마을로 달려갔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 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를 동안 수가 성에 머물면서 친히 복음을 증거해 주시므로써 더욱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 ②한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떠난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께서서는 잠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참된 양식에 대하여 교훈하셨다.
- ③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즉시 마을로 달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복음 증거의 기회와 마음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며 증거하고 있는가? 혹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36. Even now the reaper draws his wages, even now he harvests the crop for eternal life, so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may be glad together.
37. Thus the saying 'One sows and another reaps' is true.
38. I sent you to reap what you have not worked for. Others have done the hard work, and you have reaped the benefits of their labor."
39.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40. So when the Samaritans came to him, they urged him to stay with them, and he stayed two days.
41. And because of his words many more became believers.
42. They said to the woman, "We no longer believe just because of what you said; now we have heard for ourselves, and we know that this man really is the Savior of the world."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43.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 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3. After the two days he left for Galilee.

44. (Now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45. When he arrived in Galilee, the Galileans welcomed him. They had seen all that he had done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ast, for they also had been there.

46. Once more he visited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turned the water into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royal official whose son lay sick at Capernaum.

47. When this man heard that Jesus had arrived in Galilee from Judea,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to come and heal his son, who was close to death.

48. "Unless you people se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Commentary

①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음과 그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행하고 배척하였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주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자, 그 아들을 고쳐 주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②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 전능자이자 구세주이시라는 점이다.

③영육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자. 특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지체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자.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 려오소서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49.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50. Jesus replied,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51.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52.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The fever left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53.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So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54. This was the second miraculous sign that Jesus performed, having come from Judea to Galilee.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매일 주와 함께' 동행 하는 삶 | 주일 속회 시간에 작성하고 나눕니다.

(1) 동행 계획 세우기

한 주 동안 매일주와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 생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① 기도 생활

② 말씀 생활

③ 예배 및 교회 모임

④ 전도 및 교제

⑤ 기타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선행 일 한 가지씩을 적어보세요.

① 가정

② 학교 및 직장

③ 기타

2. 영성 일기 |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작성합니다.

(1) 감사 일기

오늘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 기도 일기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개인 및 중보 기도 제목)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1. Some 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feast of the Jews.

2.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colonnades.

3.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 -- 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4. (BLANK)

5.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thirty-eight years.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된다고 알려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 곳에 치유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던 38년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이 치유된 내용이다.

②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으라고 한 생명의 선언이었다. 절망속에 빠져 있던 병자는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③지금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육신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자.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7. "Sir," the invalid replied,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 a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8.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9.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a Sabbath,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 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 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가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0. and so the Jews said to the man who had been healed, "It is the Sabbath; the law forbids you to carry your mat."

11. But he replied, "The man who made me well said to me, 'Pick up your mat and walk.'"

12. So they asked him, "Who is this fellow who told you to pick it up and walk?"

13. The man who was healed had no idea who it was, for Jesus had slipped away into the crowd that was there.

14. Later Jesus found him at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are well again.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Commentary

①본문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것과 관련하여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신음하던 사람이 드디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며, 다만 안식일에 율법을 위반하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항의하며 분노했다.

②안식일에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칭하시면서, 그분의 계속적 창조사역에 따라 자신도 사역할 뿐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더욱 더 사태를 악화시켰다. 즉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긴 신성 모독을 범한 자로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③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뒤로 한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 나는 안식일의 참된 주인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5. The man went away and told the Jews that it was Jesus who had made him well.

16. So,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s persecuted him.

17.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18.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
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
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
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
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
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
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
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19. Jesus gave them this answer: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20. For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shows him all he does. Yes, to your amazement he will show him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21. For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 and gives them life, even so the Son gives life to whom he is pleased to give it.

22. Moreover, the Father judges no one, but has entrusted all judgment to the Son,

23. that all may honor the Son just as they honor the Father. He who does not honor the Son does not honor the Father, who sent him.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즉, 본문에서는 비밀, 부활, 심판, 경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관계임을 증거함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②또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곧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최후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경고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선행을 따라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③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영생이 아닌 심판의 부활에 처해질 사람들은 없는가? 기도하며 전도하자.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4.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25. I tell you the truth,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26. For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e has granted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

27.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28. "Do not be amazed at this, for a time is coming when all who are in their graves will hear his voice

29. and come out -- those who have done good will rise to live, and those who have done evil will rise to be condemned.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편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Psalms119:9)

본 권은 금란 청년들의 영성 생활의 성장을 위하여 금란교회 청년회에서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1.발행 개요

- ① 발행처 : 금란청년회
- ② 발행일 : 2014년 4월1일
- ③ 디자인 : 표지 (김완석), 내지 (정재상)
- ④ 편 집 : 오성범

2.참고 및 인용 문헌

- ① 성 경 : 개역 개정 한글 성경, NIV 영어성경, C3TV온라인 성경
- ② 주 석 : 그랜드 종합 주석 (제자원 / 성서 아카데미), 카리스마 종합 주석 (기독지혜사)



2014년 표어

“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금란청년 ”



◀ 청년회 예배 시간 & 장소 ▶

요일별 구분	시 간	장 소
● 주일 대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5층 각 팀별 지정석
● 주일 속회모임	주일 3부예배 후 (오후 1:00)	본당 8층 ~ 10층
● 토요 찬양예배	토요일 (오후 7:00)	본당 9층 비전홀
● 금요 데이트 기도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8:30)	교육관 2층 소예배실



기 독 교 금란교회
대한감리회
KUMNAN METHODIST CHURCH

131-803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

Tel : 02-490-7000(대표) <http://www.kumnan.org>